

# 생태환경적 관점에 의한 의상 디자인 연구

## - 보릿대 소재를 이용한 디자인을 중심으로 -

경원대학 의상디자인과 강사 손 세 란

경원대학 의상디자인과 교수 김 정 희

### · 목 차 ·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생태환경적 관점의 의상 소재로서의 질풀
- IV. 작품제작 및 해설
- V. 결론 및 제언

### <요 약>

모든 문제의 판단과 해결의 기준으로 역할을 해온 인간 중심적 윤리관에 의한 급격한 산업화는 자연을 황폐화 시키는 등 인간의 삶에 위협적인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디자인 전 과정이 인간과 생태환경의 삶과 보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예술적 특수성에 속한 장르이며 문화의 한 영역인 의상디자인 분야에서도 사회, 문화의 복합적 현상과 의상 디자인과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생태환경적 관점에 근거한 디자인 윤리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 이에 본 연구는 생태환경의 윤리적 관점과 디자인 전반의 생태환경적 경향을 통해 디자인의 미적가치를 탐구하고 자연물인 보릿대를 실용의상에 적용하여 친환경적 디자인의 필요성 및 실용성에 대한 메시지를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며 생태환경적 소재의 가치 발견 및 자연물 소재개발의 영역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생태환경 중심적 윤리의 개념을 고찰하고 의상을 중심으로 디자인 전반에 걸친 생태환경적 경향을 분석하였으며 앞의 관점에 의해 재활용된 질풀의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대 복식의 경향에서 보여지듯이 수공예적인 소재개발은 독창적인 조형미와 개성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취향의 차별화'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의상디자인의 생태환경적 디자인 윤리의 관점은 자연과 인간이 동등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을 우

선으로 재활용을 통한 디자인 방법에서 그에 따른 미적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보릿대소재의 개발을 통한 연구는 자연물과 인간의 인위적 행위의 산물인 실용 의상과의 조화를 통해 생태미학적 가치의 'Eco-look'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보릿대 교유의 표면광택에 의한 독특한 재질감의 발견은 장식적 의상 소재로서의 미적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생태환경적 재료의 발견과 재활용 및 응용에 의한 자연물 소재 개발의 영역확대를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

## I. 서론

### 1. 연구 목적 및 방법

현대 사회의 산업화 과정은 자연의 황폐화는 물론 생태환경의 영향권 내에서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인간의 삶에도 위협적 요인으로 인식되며 자연주의 혹은 친환경주의와 같은 생태환경적 관점의 사상적 공감의 확산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물리학자이며 환경학자, 환경운동가로 활동 중인 독일의 에른스트 울리히 폰 바이츠제커는 각 세기는 저마다의 고유한 얼굴이 있다고 보고 21세기를 환경의 세기로 규정하였으며 환경과 자연자원의 희소성이 우리 삶의 중심적인 동기가 되리라고 주장 하였다.

이는 자연물 소재 개발은 물론 그것이 사용될 수 있는 시기와 인간과 환경 사이의 유기체적 윤리성의 탐구 및 필요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태환경의 윤리적 개념 및 관점, 디자인 전반의 생태 환경적 경향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본래의 목적을 다하고 재활용 되어지는 깃털의 전반적 특징을 고찰하고 그 중 장식적 소재로서 효과적인 특성을 가진 보릿대를 의상에 적용 시키는 방법을 통해 생태 환경적 소재의 재활용 가치 발견 및 자연물 소재개발의 영역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생태환경의 개념 및 생태환경중심적 윤리

생태(ecology)란 생물체가 생활해가는 상태를 뜻하고 환경(environment)이란 생활계를 둘러싸고 있는 일체의 사물, 유기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 즉 주위의 정황을 말하는 것으로 생태환경(eco-environment)이란 무생물 및 생물체와 생태군집에 작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형성과 생존을 결정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들의 복합체를 이루는 생태와 환경간의 상호작용 전체를 의미 한다.<sup>2)</sup>

생태환경문제는 철학적 신념을 전제하는 동시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에 철학적 관점의 접근은 인류문명과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오늘날의 환경 위기 앞에서 실천적으로 대처해야 함을 일깨우는 지침이며 문제 해결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생태환경에 대한 윤리적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담론에 동원되는 생태환경 윤리 개념의 정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생태환경 문제가 필연적으로 윤리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며 환경에 대한 윤리적인 입장이 자연과 인간 그리고 그것들의 관계에 대한 형이상학적 입장과 떼어 수 없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 공동체 내의 타자를 전제하며, 나와 타자와의 관계 문제이다. 우리는 한 인간의 의도와 행동이 다른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들의 고통과 즐거움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비추어 보고, 생각하며, 평가하는 관점이다.<sup>3)</sup> 일반적으로 인간의 일상적 의도와 행동은 직·간접적으로 윤리적 측면이 있는데 모든 관습과 전통은 생활방식과 행위를 규정하고 규제 하지만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법칙과는 달리 보편적이고 영원하지 않다. 이러한 규범은 공간과 시간, 지역과 역사, 사회와 문화에 따라 다르며 가변적이다. 따라서 관습과 전통의 형태로 나타나는 전통적 윤리규범은 우연적이고, 상대적이며, 유동적이다. 이때 생태환경윤리의 철학적 문제는 생태환경과 관련된 우리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보편적 척도가 되는 것이다. 그에 따른 보편적 가치의 기준은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의무 이론의 기초가 되고<sup>4)</sup> 그 기초에 의한 이데올로기는 생태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모든 분야, 즉 디자인 분야에도 윤리적 개념의 정신적 토대가 된다. ‘생태환경 윤리’의 문제는 여러 윤리들이 전제하고 있는 인간 중심주의적 전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탈 인간 중심주의적’ 형이상학의 틀에서 전혀 새롭고 보다 보편적인 윤리적 규범을 고안하는 것이며 그러한 규범에 따라 인간 이외의 존재인 환경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윤리적 입장을 세우고 필요한 윤리적 배려를 결정하는 데 있다.

## 2. 디자인 분야의 생태환경적 경향

삶에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신적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환경에 관한 문제가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환경보호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시도가 다각도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현재와 같이 환경오염문제가 전 세계에 걸쳐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생태환경적 관점에 의한 디자인 경향은 현대 디자인의 정신적 표현을 목적으로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관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1950년대 산업 미학, 1960년대의 기능주의적 사고가

2) 이승녕(1973). 「현대국어 대사전」, (서울: 한서).

한국브리태니커(1994). 「브리태니커」vol. 11, 24.(서울: 한국브리태니커),

3) 박이문(2002). 「환경 철학」, (서울: 미다스 북스). p. 29.

4) 자크 아탈리(1999). 「21세기 사전」,(서울: 중앙M&B). p. 335.

그 시대의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1980년대 디자인계는 ‘개인주의’의 영향인 과대 포장으로 재사용될 수 있는 물건이 버려져 환경오염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량으로 디자인된 제품을 더 많은 대중에게 판매함으로써 물질적인 풍요에 의한 생활수준의 고도화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했던 기업과 디자이너는 환경오염을 일으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같은 시기의 후반에 접어들면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데 독일의 자연보호 운동가인 호르스트 스테른(Horst Stern)이 “우리가 모든 것의 가격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지니는 고유한 내적 가치는 알지 못한다.”라고 비판한 바와 같이 상품의 물질적 가치가 축적됨에 따라 비물질적 가치가 상실되어 왔으나 이제는 ‘삶의 질’의 가치 전달이 디자인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1980년대 후기에서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생태환경적 관점의 디자인은 발달 시기를 맞이하여 ‘리우환경회의’, ‘밀레니엄 선언’,<sup>5)</sup> ‘다보스 포럼’<sup>6)</sup> 등 세계적 이슈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환경친화 디자인(Environment Friendly Design)’, ‘그린 디자인(Green Design),<sup>7)</sup> ‘에코 디자인(Eco-Design)’, ‘지속가능한 디자인(Sustainable Design)’이라는 용어로 내용 및 방향이 발전하고 있다.

1)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의 생태환경적 경향

현대 산업디자인의 이슈로 대두되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유지성(Sustainability)은 인류의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을 지구의 안녕 속에서 이루어 나가기 위한 개념으로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ESSD)’의 개념을 확립한다. 좁게는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지만, 국제연합환경 개발회의(UNCED)가 밝힌 개념은 경제뿐만 아니라 자연자원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지속 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1987년 WCED(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가 작성한 ‘브룬트란트’보고서에서 창안되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20세기말 들어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여<sup>8)</sup> 과학 분야의 연구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참여하는 3백개 이상의 국



<그림 1> 지속 가능한 디자인 (월간 디자인 2003 298호 4, p.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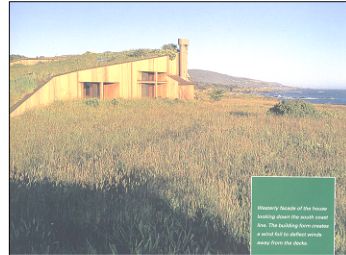
<그림 2> 재활용에 의한 디자인 (월간 디자인 2003 298호 4 p.114)

5)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지구촌 현안을 논의하여 2000년9월8일 환경보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선언.  
 6) 2001년1월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능력 지수인 환경지속지수를 발표.  
 7) 좁게는 재활용률을 높이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 고효율을 추구하는 디자인 아이디어에서, 넓게는 기술과 환경을 접목하는 교량 역할을 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8) 자크 베르니에(1999). 『환경』, 전미연(역), (서울: 한길사).

제협약을 통해서 상품의 소재와 포장 유통 및 폐기 등의 전 과정에 디자인에 관한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자이너는 당연히 환경문제가 해결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1, 2>

2)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의 생태환경적 경향

현대에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생태학적 건축 디자인의 경향은 인위적으로 계획되고 축조되는 환경과 자연환경의 적절한 통합에 대한 인식의 증대와 관련, 테크놀로지의 급속한 발전으로 볼 수 있다. 생명체로서 인간에게 필요한 환경의 본질적 특성들이 자연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요소들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자각, 자연적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건축물이나 도시 구성상의 인위적 시스템들과 통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물리적 환경



<그림 3> Brunzell Residence  
(GREEN ARCHIECTURE 1994 p.55)

의 연속성과 확장 가능성, 그리고 환경을 구성하는 재료나 시스템들의 재사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개념적, 기술적 대안들의 출현을 들 수 있다. 이는 생명체로서의 인간을 수용하는 환경의 본질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물리적 환경 그 자체를 반응하고 확장하며, 성장하고 순환하는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하려는 시각을 대변한다.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내부적, 혹은 외부적 조건들에 융통성 있게 적응하면서 새로운 요구들을 흡수할 뿐 아니라 순환과 재생산이 가능한 환경적 특질들을 개발하고 실현하려는 노력은 이 시대의 건축 디자인 경향을 주도하는 중요한 원리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9)<그림3>

3. 현대 패션에 나타난 생태환경적 경향 및 디자인 요소

패션에서의 생태환경적 경향은 오존층의 파괴와 온실효과,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환경 문제가 대두된 1980년대 중반에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나타나는데 인공적 행위에 의해 오염된 현재의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존중하여 자연으로의 동화를 꾀하며 자연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향한다는 의지의 표방이다.

80년대 중반 들어 세계 패션계는 에콜로지(ecology)란 테마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패션의 전반을 통해 나타났으며 천연소재를 선호하고, 꽃무늬와 자연의 문양을 주로 사용하며, 자연스러운 선을 강조하는 등 의복의 소재, 문양, 디자인에 고루 표현되어 에콜로지 룩(Ecology Look)<sup>10)</sup>으로 유행하였다. 이는 단순한 환경보호차원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만물의 터전인 자연과 공존 하

9) 장성주(1996). 「정보화 시대의 통합적 환경 디자인」, PLUS, 1996. 09, pp. 132-133.  
10) 정홍숙(1999). 「서양복식 문화사」, (서울: 교문사), pp. 403-404.

려는 높은 차원의 노력인 것이다. 같은 시기 프리미에비종의 환경을 염두에 둔 자연소재에 관한 논의는 에콜로지 패션의 시발점이 되었다. 또한 90년대 뉴욕에서 열린 ‘패션그룹 국제재단 (Fashion Group International Foundation)’의 환경 회의에서는 생태환경의 본질적인 것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하나뿐인 지구, 패션산업과 환경에 관한 대화’라는 제목으로 ‘패션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화학섬유의 인체에 대한 유해문제’, ‘자연소재의 사용에 대한 자연훼손’, ‘패션문화의 인간성 상실과 문화파괴의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영국의 디자이너 캐서린 햄넛(Katharine Hamnett)은 ‘자연환경과 연관해 생각할 때 의류산업은 유해요소’라고 규정하였으며, 87년 덴마크 노보텍스(novotex), 미국의 필드 크래프트사(field craft inc.)와 함께 그린 코튼 운동(green cotton campaign)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재생종이로 만든 품질 표시표 제작, ‘정글을 보호하자 (Don't bungle the jungle)’와 같은 구호와 야생동물의 모습을 티셔츠에 프린트하는 등으로 나타나며 패션업계에서의 이러한 경향은 직접적인 계몽을 목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로서 생태환경의 의미를 주장하는 것이다.

에콜로지 패션은 주로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내추럴리즘의 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가져 내추럴리즘과 혼용되기도 하며 패션 디자인의 스타일에 있어서는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생태환경주의는 자연을 존중하고 이와 더불어 살아가자는 내추럴리즘의 기본 정신에 환경친화적, 재활용, 재생의 의미부터 환경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태도까지 포함한다는 점에 있어 내추럴리즘과 구별 된다.<sup>11)</sup>

의상에서 보여진 생태환경적 이미지의 다양성은 의상이 타 분야에 비해 짧은 유행주기를 갖는 특성을 한 요인으로 들 수 있으며 이는 민첩하고 다원화된 현대사회를 적시에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생태환경적 이미지는 자연 지향적이고 낙관적이며 자연에 대한 동경으로 자연의 재현 및 원시적 이미지의 다양한 표현 등으로 나타났다. 디테일 면에서는 자수, 셔링, 아플리케 등이 두드러지며 문양의 패턴은 페이즐리, 골드 프린트, 민속풍 이미지의 프린트, 꽃무늬 등이 있다. 실루엣은 착용감에 중점을 두어 신체를 감싸는 듯한 여유 있는 라인, 신체 선을 자연스럽게 표현한 내추럴 피트라인(Natural Fit Line)<sup>12)</sup>으로 자연



<그림 4> Catharine Hemnett (Fashion Show 991)



<그림 5> Andrew Groves (Fashion News '00 S/S)

11) 윤수정(2002). 「패션 트렌드의 다중화, 복합화 현상에 대한 질적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 27.

적인 외관과 촉감을 지닌 직물이 부드럽고 가벼운 소재와 함께 쓰였다.

생태환경적 소재군의 특징은 첫째, 무착색, 무염색 위주로 가공되며 바이오 정련이나 허브염 또는 채토염등의 염색과 힐링 가공된 직물로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인체와 환경에 끼칠 수 있는 유해성을 최소화 시킨 소재들이다. 둘째, 리사이클링 소재들로 과거에는 주로 아플리케 방식으로 재사용하였으나 오늘날은 이전의 소재를 완전 분해 시켜 재 방사하는 과정을 통한다.<sup>13)</sup><그림4,5>

### III. 생태환경적 관점의 의상 소재로서의 짚

#### 1. 짚의 일반적 고찰 및 활용

짚은 벼, 보리 등의 이삭을 떨어낸 줄기이며, 풀은 초본식물의 속칭이다. ‘짚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약 15년 전쯤으로 이전에는 초고(草藁)라 하였다.

짚풀은 섬유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흔히 알고 있는 섬유로는 삼, 모시, 무명 등이 있다. 이는 정제된 것으로 곱고 섬세하여 직물로 사용되며 보통의 짚은 정제되지 않은 섬유로 거칠고 투박하여 민구류에 사용하였다. 짚의 종류는 벼짚과 보릿짚, 밀짚, 귀리짚 등이 있다. 보통 짚풀로 불리는 벼짚은 의·식·주의 모든 영역에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 의생활에 활용된 짚으로는 ‘도롱이’, ‘짚산’ 등이 있다. 도롱이는 비올 때 쓰는 일종의 우장으로 ‘사의(蓑衣)’라고하며 지역에 따라 방한용으로도 쓰였다. 보리짚은 쉽게 부서지는 특성 때문에 자리의 무늬를 넣는데 주로 이용되었으며 표피에 윤이나 1950년대 초에는 줄기에 물을 들여 기물에 붙이는 ‘고장기법(藁裝技法)’이 유행하였다. 밀짚은 유연성이 부족하여 공예품에는 호밀짚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여치짚, 맥고모자, 밀대방석 등을 만들었다.

다음은 본 연구의 주소재인 보릿대와 벼짚, 밀짚의 특징을 비교한 표로 분석의 기준은 보릿대와 형태나 용도면 에서 유사한 소재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표 1> 짚의 특성 비교

	벼짚	보릿짚	밀짚
특성	-타 짚풀에 비해 탄력성과 유연성이 뛰어난. -거친 질감. -생활 전반에 쓰임, -지붕재, 씨앗망대, 계란 꾸러미, 독뚜껑, 명석, 금줄, 오쟁이등 쓰임이 다 양함.	-쉽게 부서지는 특성이 있지만 밀짚에 비해 부드럽고 탄력이 있음. -광택이 있으며 금빛을 띠어 장식적 효과를 가짐. -모자, 부채, 탈 등에 쓰이며 고장 기법을 통해 베갯모, 실패등을 장식하는데 쓰임.	-쉽게 부서지는 특성이 있으며 뻣뻣한 질감. -광택이 있으며 금빛을 띰. -꼬거나 틀 필요가 없는 거적, 삼태기, 모자, 방석 등에 쓰임.

12) 「월간 마스터 라이프」 (1993). 마스터라이프 사, p.103.

13) 강현영(2000). 「현대 패션에 나타난 신소재 동향」, 중앙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p.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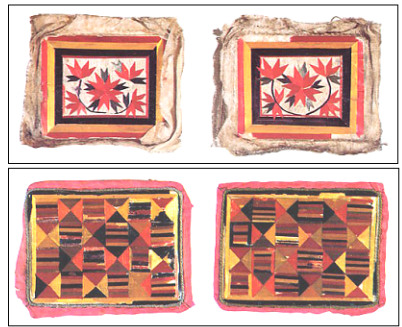
풀의 종류로는 벼과, 사초과, 골풀과 등이 있으며 잎이나 줄기가 길고 섬유질이 발달한 초본류가 공예품으로 이용되고 보조재료로 사용되는 목본만류(木本挽留) 및 목본식물까지 포함하면 그 종류는 50여 종에 이른다.

## 2. 보릿대의 특징 및 활용사례

에티오피아 고지대와 남동 아시아에서 재배가 시작되어 우리나라에는 '삼국유사'에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 부여의 박해를 받아 남쪽으로 내려올 때 보리를 지니고 내려왔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이미 널리 재배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혼암리 에서는 BC 5~6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걸보리가 발견되었다.<sup>14)</sup> 보리는 밭이나 논에 심어 기르는 두해살이 곡식으로 10월 중순 정도에 씨앗을 뿌려서 이듬해 4~5월에 꽃이 피고 6월에 수확을 한다. 보릿대는 이후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삭을 자른 후 겉껍질을 벗겨내고 햇볕에 잘 말린다. 적당한 기후에 잘 말린 보릿대는 선명한 빛깔의 금빛을 띤다.

<표 2> 보릿대의 특성 비교	
	보릿대의 특성
시각적 특성	-자연적인 금빛과 보릿대 자체의 광택으로 인해 차갑고 인공적인 이미지. -메마르고 오래된 듯한 한 표면 효과. -보릿대 표면의 결과 염색의 조화로 뛰어난 자수 효과/ 고급스러움.
물리적 특성	-줄기의 중앙이 비어 있는 스트로우 형태로 쉽게 부서지는 특성이 있지만 수분을 가하면 유연해 지기 때문에 다루기가 용이함. -중량이 거의 나가지 않음.

보릿짚은 여러 가지 민구류로 재활용되었는데 모자, 부채, 탈, 조각 공예등의 세공품에 이용 되었다. 그중 보릿대 조각공예는 보릿대 표면에서 우리나라는 특유의 윤기와 광택을 활용한 기법으로 1950년대 초에 유행하였다. '고장기법(藁裝技法)'이라 불리는 이 기법은 명주실로 수를 놓은 듯한 효과를 내는 것이 특징이며, 현재 전해 내려오는 보릿대 조각 공예의 유물로는 보릿대 조각 장식 실패, 인두판, 물건을 담아두는 상자, 베갯모 등으로 베갯모에는 주로 꽃 문양이나 기하학 무늬가 사용 되었다.<그림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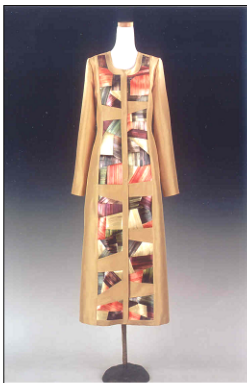
<그림 6> 보릿대조각장식 베갯모 (짚풀 생활사 박물관 도록)

14) 한국 브리태니커, 「브리태니커」, vol. 9, (서울: 한국브리태니커, 동아일보, 1993, p. 585.



### 3. 의상의 장식적 소재로서 보릿대 의의

보릿대를 의상에 적용시키는 기법으로 ‘고장기법(藁裝技法)’을 들 수 있는데 ‘고장’의 ‘고(藁)’는 마른 것을 의미하며, ‘장(裝)’은 꾸미다·장식하다는 뜻을 갖는다. 보릿대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에 나타나듯이 대에 윤이 나며 정갈하여 일반 짚풀을 이용한 공예품에 비해 고급스러운 것이 특징으로 의상의 재료로서 보릿대가 갖는 의의는 장식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 기법의 특색을 보면 명주실로 수를 놓은 듯 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천연소재로서 현대 의상의 장식적 소재로 사용되는 비즈의 역할 또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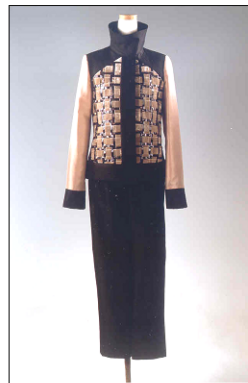
<작품 I> 전통보릿대 조각공예 기법의 활용



<작품 II> 유연성을 보완하기 위해 보릿대를 비즈 형태로 제작



<작품 III> 버튼을 스티치의 활용으로 단위형태를 이어 직물로 활용



<작품 IV> 직조를 활용해 이질적인 소재의 결합을 의도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복식의 개념이 ‘입는다’는 것에서 ‘치장 한다’는 것으로 바뀌었고,<sup>15)</sup> 이는 복식의 실용적 가치 이외에 상징적 가치 또는 미적 가치가 더욱 중요시 되었으며 복식이 인간의 감정적 측면과 의사 전달 측면을 갖춘 매개체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치장하다’의 개념으로의 변화는 표현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것으로 복식 착용의 동기가 되었던 장식적 특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산업혁명 이후, 특히 20세기에 들어와 공예가 공업화 되면서 장식을 첨가하는 일이 기피되었다. 그러나 최근 패션계 뿐만이 아니라 예술계 전반을 볼 때 오히려 장식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Toffler<sup>16)</sup>가 예견했듯이, 대량 생산의 첫 단계에서 추구되었던 표준화, 규격화가 끝없는 다양화에 의해 대체되었기 때 문임을 들 수 있으며,<sup>17)</sup> Barnard<sup>18)</sup>는 패션과 의복의 기능을 보호, 정숙성과 은폐, 비정숙과 유희,

15) 김민자(1993). 「인간성 회복을 위한 21세기 의생활 문화」, (서울: 삼성문화), 18호, pp. 22-25.

16) Alvin Toffler(1986). 「Future Shock」, 장을병(역), (서울: 범우사), pp. 220-268.

17) 박셋별(2000). 「복식에 있어서 장식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p. 1.

18) Malcom Barnard(1996). 「Fashion as Communic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 47.

커뮤니케이션, 개성, 사회적 지위와 역할, 경제적 지위, 정치적 상징, 종교, 사회적 의식, 여가 등의 표현으로 보고 이러한 기능은 장식적 디자인에 의해 표현되기가 쉽다고 하였다.

## IV. 작품제작 및 해설

### 1. 제작 의도 및 방법

자연물을 원시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가공에 의해 새롭게 디자인되는 최근의 경향을 바탕으로, 질풍의 재활용적인 특징과 시각적인 면에서의 가공을 통해 보릿대를 의상의 소재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작품은 제작 기법에 따른 네 그룹으로 전통 조각 공예 기법, 비딩, 아플리케, 직조로 분류되며 유연하지 못한 보릿대의 특성상 부분적으로 이용하였다. <작품 I>의 보릿대는 각각의 단위 형태로 접착 심지위에 제작 하여 원단으로 이어 박아 주었으며 <작품 II>는 보릿대 자체에서 우러나는 금빛을 그대로 사용하여 비즈 형태로 제작하였다. <작품 III>은 단위형태로 제작된 보릿대를 버튼호울 스티치로 마무리하고 코바늘뜨기를 이용해 그물형태로 이어주었다. <작품 IV>는 보릿대의 길이를 그대로 이용해 접착심지로 작업한 후 벨벳 리본 테잎과 직조하여 유연성을 보강하였다.

## V. 결론 및 제언

연구는 인간중심적 윤리관에 근거한 디자인의 전반적 과정과 결과가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생태환경 파괴의 비극적 결과를 낳았음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생태환경 중심적 윤리관으로의 전환으로 보았으며 그에 대한 방법으로 자연물을 재활용하여 의상의 장식적 요소로 활용하였다.

이에 자연물 소재인 ‘보릿대’의 재활용은, 자연의 거시적 순환주기 및 미시적 순환주기 관점에 주목한 자연주의와 친환경적 사고(思考)에 부응할 수 있으며 친환경 소재로의 발상전환은 다양한 자연물 소재의 미학적 재발견의 의미를 갖게 하였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상 디자인의 생태환경적 디자인 윤리의 관점은 자연과 인간이 동등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재활용을 통한 디자인 방법에서 미적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자연물과 인간의 인위적 행위에 의한 산물인 실용의상과의 조화를 통해 생태미학적 가치를 일깨울 수 있으며 이것은 'Eco-look'으로 표현되어 질 수 있다.

셋째, 소재개발 중 관찰 된 균열, 흡습, 험 등의 비실용적 문제는 보릿대를 비즈 형태로 제작할 경우 변형의 취약점이 개선되어지며 보릿대 고유의 표면광택에 의한 독특한 재질감의 발견은 장식적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으로 파악 되었다.

이상으로 디자인 분야의 전반적 경향에서 보여지는 '생태환경적 관점'의 디자인 경향은 의상 분야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순한 이미지 표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소재활용의 제한성 때문에 사료되며 의상의 실용성 문제 등의 측면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가 의상 디자인 분야의 생태 윤리 중심적 관점을 통한 디자인 연구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생태환경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 자연물 소재의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접수: 2004년 1월 22일)

### 【참 고 문 헌】

- 강현영(2000). 『현대 패션에 나타난 신소재 동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민자(1993). 『인간성 회복을 위한 21세기 의생활문화』, 서울: 삼성문화. 18호 pp. 22-25.
- 박샛별(2000). 『복식에 있어서 장식적 디자인에 관한연구』,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석사논문.
- 박이문(1997). 『문명의 미래와 생태학적 세계관』, 서울: 당대.
- 이전숙외(2000). 『섬유제품의 성능유지와 관리』, 서울: 형설.
- 인병선(1994). 『맥간공예』, 서울: 짚풀 생활사박물관.
- 자크 아탈리(1999). 『21세기 사전』, 편혜원: 정혜원(역), 서울: 중앙M&B.
- 정홍숙(2000). 『서양 복식 문화사』, 서울: 교문사.
- 하지수(1993). 『현대복식에 나타난 원시주의 양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소원(1995). 『복식에 나타난 에콜로지 이미지』, 연세대학교 의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 Ed Rossbach. 『The Nature of Basketry』, 1986.
- Malcolm Barnard. 『Fashion as Communication』, New York: Routledge, 1996.

# A Study of Fashion Design in the view of Ecological Environment - on the basis of the design using barley straw -

Lecture, Dept. of Fashion Design, KyungWon College. **Son, Se-ran**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KyungWon College. **Kim, Jung-he**

Human-based custom and ethics in human history maintain philosophic thoughts and an era of science through knowledge accordingly accumulated, and play a role as a standard of judgment and settlement of all problems. This human-based ethics that were connected with devastation of nature due to rapid industrialization and thus recognized to be threatening factor to human lives, have come to be regarded as a subject to be solved from a point of view different from the existing thoughts. Therefor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present design ethics through the ethic concept and viewpoint of ecological environment and the ecological & environmental trends of general design, and to investigate aesthetic value of ecological & environmental design based on the design ethics. Besides, I tried to deliver the message about the necessity of environmental-friendly design using the more positive methods after applying barley straw that has efficient characteristics as decorative materials. The objectives that I set myself was to discover the worth of recycling the ecological & environmental materials and to expand the territory of development of natural materials, by experimenting the possibility of barley straw, a natural object as the materials of costumes through the manufacture of the works. As for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is, I considered the concept of human-based ethics and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ethics, and analyzed the ecological & environmental trends throughout the general design and the trends of the field of fashion design, and finally examined the general straw art that was recycled from an ecological & environmental point of view. As for the studies of works, I induced harmony with practical costumes, the products of artificial acts of human beings and natural objects, on the basis of design from the development of barley straw.

**Key words** : Ecological Environment, Recycle, Barley straw